

한국의 대표적 古典은? 삼국유사

역사교양물의 대중적 인기와 고전 읽기 붐에 힘입어 영원한 민족의 고전 <삼국유사> 및 관련서가 크게 관심을 끌며 발간붐이 일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우리역사와 문화를 바로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이 책들은 기존의 딱딱한 학술, 역사서와 달리 쉬운 한글번역과 세련된 편집으로 어린이,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출판사의 나랏말씀 시리즈 <삼국유사 1.2>, 일연학연구소의 <삼국유사 교감연구>, 한길사의 위대한 한국인 인물명전 시리즈 <일연>, 서해문집의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등이 올해 발간된 책들, 이밖에 <역해 삼국유사> <만화 삼국유사> <원문 삼국유사> <삼국유사> 등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출판사는 나랏말씀 한국학 총서 기획시리즈의 첫 번째로 올 3월 <삼국유사 1.2>를 펴냈다. 고전번역의 권위자인 부산대 이계호 명예교수가 30년간의 각고 끝에 펴낸 이 책은 그동안 오역, 졸속 편집, 베끼기 등으로 완전한 정본이 없었던 <삼국유사>를 완벽하게 번역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교감연구’ ‘일연’ 등 신간 4종 청소년·성인등 독자층 다양 영역판 ‘삼국유사’ 내년 출간

다. 특히 이 책은 고전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를 줄일 수 있도록 한글세대에 맞게 옛말투는 피하면서도 원전의 뜻과 중요대목을 살려 번역했고, 모양또한 3백쪽 인권의 아담한 문고본형식을 취해 새로운 <삼국유사> 읽기에 시동을 걸었다.

은혜사 일연학연구원(원장 법타스님)이 학술총서 제1권으로 발간한 <삼국유사 교감연구>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하정용씨와 일연학연구원 객원연구원인 이근직씨가 현존하는 여러 판본들을 소개하고 이 판본들의 문제점과 그 이전에 있었던 대고의 문제점들을 비교연구 18개월에 걸쳐 정리한 것이다. 일연학연구원은 지난해 음력 7월8일 일연성사의 다례제를 계기로 설립돼 일연성사에 관한 현창대전 학술세미나 개최 및 다례제 자료집인 <보각국사 일연성사

와 은혜사>라는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한길사의 ‘위대한 한국인 시리즈’로 나온 <일연>은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고문기교수(명지대)가 경산 삼성산, 장흥 보림사, 양양 진정사 등 일연성님이 거처한 모든 지역을



이은자 기자

대·소승 58 핵심경전 ‘한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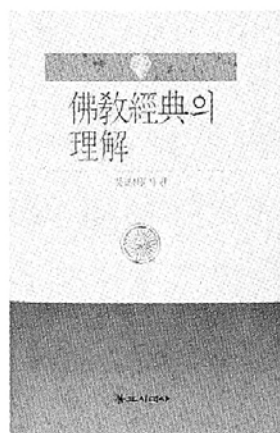
불교경전의 이해 대중·사상·역사성 기준 50여학자 집필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전을 읽는 것이다. 그러나 경전읽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팔만대장경이나 팔만사천법문이니 하는 방대한 경전을 어떤 순서로 읽어야 하는지 경전을 다 보아야만 불교를 알 수 있는 것인지 불자들은 아득하기만 하다. <불교경전의 이해>(불교시대사 7권)는 그런 고민에 빠진 불자들에게 대·소승 핵심경전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숫타니파타, 법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부도은중경 등 58개 핵심경전을 성립시기와 형식, 내용에 따라 초기 경전·인연 설화·삼매 수행·반야·방등·법화 화엄·밀교·계율·신앙

찬탄·교계 경전 등 10가지로 나누어 새롭게 분류 해설한 것이다. 경전의 선정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 사상적으로 중요한 것,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50여 불교학자들이 집필했다. 특히 총론부분에서 ‘경전의 성립과 유통’, ‘경전의 구성과 분류’, ‘대장경의 종류’ 등을 정리해 경전을 처음 접하는 불자들이 보다 폭넓게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불교신문사에서 92년부터 94년까지 3년간 연재해 온 경전탐구를 한 권으로 묶은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경전을 읽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교시대사 2만3천원>



이은자 기자

그것은 바로... 이은윤 저음

中 선불교 행화도량 86곳 답사기



<그것은 바로 네 마음이니>는 중앙일보 종교전문 대가 이은윤씨가 중국 선사들의 행화도량 86곳을 답사하며 그들이 남긴 화두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풀어낸 것이다.

지난 7월 첫째권에 이어 두번째권으로 선보인 이 책은 중국 선불교의 돈오

남종 선종을 확립한 6조 혜능조사와 그가 주석했던 조계 남화선사를 비롯해 동산 5조사, 운문산 운문사 등 안휘 호북 광둥성 내의 주요 선종사찰과 유적, 그와 관련된 선사들을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6조 혜능조사 진신상, 신라승려이면서 중국에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은 김교각스님의 육신상 등 최초로 공개되는 많은 사진자료들을 담고 있다. <자작나무 8천5백원>

화제의 책

명상, 나를 찾아서 최예선 저음

삶속에서 깨달음의 등불 밝히기



아주 잠깐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세상을 향해, 세상과 더불어 세상속에서 조화로운 순간을 이룰때가 있다. <명상, 나를 찾아서>가 전하는 메시지 또한 그런 마음의 상태이다.

저자인 최예선씨(번역가)는 수행자들, 명상가들, 성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들도 다름아닌 마음의 조화로운 상태라고 설명한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삶의 굴레를 벗어나 깨달음의 등불을 밝히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라고 이 책을 통해 최씨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원클럽 6천5백원>



“내고장 문화유산 알고 지키자”

지역별 문화재 관련서 잇따라 출간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 울 한해 동안 지역문화원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방문화재의 현황을 담은 문화재관련서들이 잇따라 발간됐다. 용인문화원 부설 함토문화연구소에서 펴낸 <내고장 용인 문화유산총람>은 선사시대 유물유적에서부터 고분, 사적지, 건조물, 미술 공예 민속자료, 전적 서적 고문서, 기념물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경기도사연구총서 제2권인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은 경기도의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민속 등 문화와 예술 전반 11개 분야를 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조사해

를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서울 풍납토성 실측조사연구>는 백제문화개발연구원에서 한강유역을 주생태터전으로 삼았던 백제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풍납토성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다.

이들 지방문화재 관련서들은 내고장에 산재해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먼저 아는데부터 새문화창달이 시작된다는 차원에서 발간돼,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 보호하는 한편 지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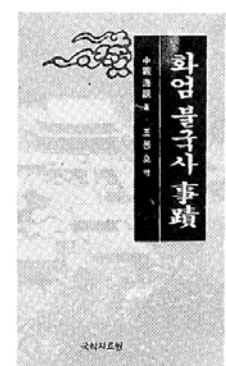
“화엄사의 과거 궁금하십니까”

조용호씨 ‘화엄 불국사 사적’ 완역출간

지리산 화엄사의 원래 이름은 화엄 불국사(華嚴 佛國寺)이다. 큰 절이 여덟이고 81암자가 어우러져 있어 이를 통칭 화엄 불국사라 했다. 이 화엄사 사적의 진가를 보여주는 <화엄 불국사 사적·華嚴 佛國寺 事蹟>이 완역 출간됐다.

조선시대 숙종 23년(서기 1697)에 화엄사에서 판본으로 간행된 <대화엄사사적·大華嚴寺事蹟>을 조용호씨(불교연구가)가 완역한 것.

이 사적기에는 화엄사가 위치한 전남 구례군이 백제의 영토가 아니라 본래 신라의 영토였다고 단정 짓는다. 화엄사의 창건에 관해서는 법흥왕 때에 절을 짓기 시작해 대를 넘겨 진흥왕 5년 서기 544년에 이르러 낙성된 흥륜사로 창건되었음을 밝히는 등 화엄사의 전체적인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 <국학자료원 1만2천원>



보르헤스전집 펴내

민음사, 소설집 5권

도서출판 민음사가 94년부터 발간해 온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소설집 5권을 완간했다.

<불한당들의 세계사> <곡선들> <알렙> <칼잡이들의 이야기> <세익스피어의 기억> 등이 바로 그것. 이 전집은 단편의 장편소설도 쓰지 않은 보르헤스의 단편소설을 한데 모은 것이다.

민음사는 앞으로 보르헤스가 남긴 시와 에세이, 보르헤스 평전을 후속발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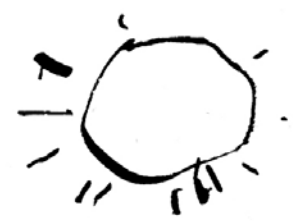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민족사
2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용 타	대원정사
3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힘이 있다	일 타	효 립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5	금강경의	무 비	불 권
6	사십구재란 무엇인가	효 립	행 원
7	내걸음의 끝은 마음에 있네	이 기 영	한국불교연구원
8	수행으로 가는길	이 제 열	대원정사
9	한국사찰음식	김 연 식	우리출판사
10	불교사상의 이해	정재권역해	불 지 사

구입문의: (02)737-0695

이·세·상·에·감·취·진·진·정·한·우·리·의·행·복·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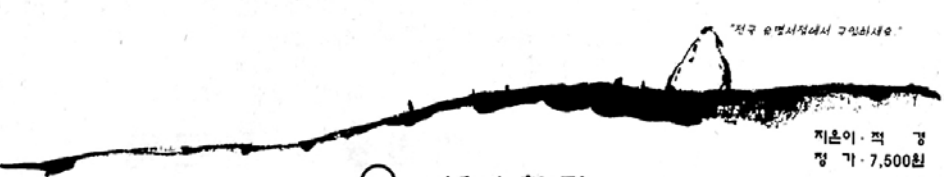
백우이야기



고품과 행복의 품, 좌충우돌하며 진정한 삶과 행복을 향하는 끊임 없는 구도의 여정을 불교적 관점에서 시의 영혼으로 표현한 아름다운 서사시이다. -박우-

대단히 고급스런 문체에다 내용이 아주 깔끔해요. 음악으로 치자면 명상음악같은 음율을 지닌 멋과 맛이 있는 책이에요. 근래에 읽은 도서 중 가장 정성을 다하여 읽었습니다. -서연 김경우-

'백우이야기'는 삶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서연 명경아-



지은이·박 우 정
정 가·7,500원

도서출판 한길
전화 0346-574-5585 팩스 0346-574-0808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적시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신간!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차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법보시 주문을 받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